

##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사역의 시작과 끝

사실 저희는 수년 전 페루에 가서 신학교를 설립 하려고 했습니다. 세번 짐을 싸고 갈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던 중 SEED USA 선교회 대표 목사님으로부터 동남아 영어권 사역을 위해 기도해 보라고 제안을 받은 후, 꿈에도 생각치 못한 캄보디아 신학교에서 총장직을 맡아 달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저희는 2020 년 11 월에 건강 문제로 급히 미국으로 귀국하신 전 총장을 만나 제안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30 년전에 저에게 주신 10/40 창에 대한 비전을 상기 시켜주셨습니다. (92 년도에 러시아 선교를 할때도 시베리아에서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캄보디아가 10/40 창 안에 있고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답사도 없이 캄보디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2021 년 3 월에 이사회에서 3 대 총장으로 임명을 받고, 저희는 2021 년 8 월에 코로나 때에 신학교의 긴급 요청으로 호텔에서 2 주 격리 후 학교에 정착하여 100 년을 내다보며 저의 임기 동안 WTCS 학교를 동남아에서 우수하고 명성있는 개혁신학교로 발전하기 위해 저의 부부가 헌신적으로 섬겨왔습니다. 바로 아시아 신학연맹 (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이 되었고, 내년에 정회원 인준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두차례 미국에서 신학 서적을 수집 운송하여 신학교 도서관을 8 천권이상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남아 학생들을 그리스도 제자로 양육하여 각 나라로 파송하는 일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사역임을 알기에 제자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귀가 이 신학교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수차례 영적싸움에 위해 기도를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전 총장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교직원이며, 현지인 목사가 자신의 입지와 영향력이 줄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작년부터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을 맡고 있는 한인 선교사님과의 마찰이 커지면서 뜻밖에 지난 5 월 1 일 사직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조#1: 현지인 목사의 사직서)

사무총장이라는 보직과 학부를 가르치는 교수로써 학기 중에 화가 난다고 그만 두는 것은 바람직 한 것이 아니기에, 교수회를 열고 논의한 후 사표를 수락하기로 결의하고, 처장회에서도 현지인 목사의 의사를 존중하여 교회에서 full time 으로 사역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사직서를 수락하였습니다. (참조#2: 교수회 결의서, 처장회 결의서)

그러나 더 큰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법적 서류 (토지 명의, 학교 등록 모두가 현지인 목사 이름으로 등록:법적으로 주인임) 그가 학교에서 사임을 했지만, 법적 권한은 그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 총장이 2003 년에 신학교 부지를 구입했을 때 법인으로 토지 명의를 하지 않고 현지인 목사의 이름으로 등기 되었기에 이러한 사태를 유발시킨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도 현지인 목사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조심스럽게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총장과 현지인 목사의 사임 건에 대하여 첫 번째 대화를 했을 때 이사회에 연락해서 토지 명의를 변경하도록 하자고 제시를 해서 이사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조#3: 이사회에게 보낸 첫번 이메일)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1 월에 있는 정기 이사회때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총장의 입장에 변화가 온 것을 감지하게 된 이유는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변경할 때 ,4% 의 취득세 (약 \$100,000 이상) 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컸던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또한 전 총장의 말에 의하면 현지인 목사가 “자신의 이름을 빌려 주었고, 그 동안 학교를 위해 일했으니 “ 토지 명의를 넘겨주는 것에 큰 액수의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수도 있다는 말을 던지시 비추셨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재정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반응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결국에 전 총장의 실수든, 의도적이든, 상관없이 누가 보아도 본인(전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니까, 제일 좋은 대책은 현지인 목사와 같이 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 후 두번째 전 총장과 대화 중에 저한테 현지인 목사에게 사과 하라는 말 때문에 감정 대립이 되었고, 격분된 가운데 전 총장이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참조#4: 전 총장이 저에게 보낸 이메일)

이런 중에 학교가 방학이라 많은 학생들은 이모양, 저모양으로 지역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턴십을 마련 보내 주었고, 저희는 방학 중에 치아 치료를 위해 한국에 나갔으며, 사모는 메디케어 등록에 문제가 생겨서 미국으로 급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8 월 10 일에 캄보디아로 귀환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7 월 5 일에 현지인 목사가 선임한 변호사로 부터 저희에게 2 주 안에 학교에서 퇴거하고, 총장의 직무를 중지 하라는 서신을 받습니다.

변호사의 서신을 보면 현지인 목사가 거짓으로 증언한 말이 많습니다.

본인이 사임해놓고 해고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5: 변호사의 첫번째 서신)

전 총장은 설립자 중 한분이신 조광수 목사님에게 제가 학교를 떠나면 더 이상 총장이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현지인 목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고,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교직원들도 “현지인 목사 배후에 전 총장”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였습니다.

위에 첨부된 이메일의 내용 중에 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번 대화에서도 부탁드린 바와 같이 Pheak 목사와 화해를 부탁하였는데 목사님은 계속 자기 주장대로만 처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 내 소견을 다시 밝힌 후에 **다음 단계**로 들어 갈까 하는 내 생각을 보내드립니다.”

전 총장은 자신과 상관없이 현지인 목사가 임의로 행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본인은 뒤에서 숨고, 화해를 위해 본인이 온 것 같은 모습으로 두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전 총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 분의 작품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 그 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사회에 임명으로 왔기에, 상식적으로 이사회가 중심이 될 것을 알기에, 그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여기에 구조는 전총장의 개인 신학교의 실세가 여전히 움직임을 제가 사역 중에도 많이 느껴고, 중간중간, 간섭의 입김도 많이 느껴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니, 더욱 명확하게 들어났습니다.

여러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 만일 저를 쫓아낸 것이 현지인 목사가 혼자서 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현지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총장이 될 수 가 없습니다. 전 총장 자신은 은퇴 후 신학교에서 완전히 손을 놓았다고 하면서 왜 급히 캄보디아에 왔습니까? 전 총장은 퇴거 마감인 7 월 19 일 하루 전인 18 일에 도착했습니다.

(2) 2 년 동안 많은 신학교에 많은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총장이 저를 쫓아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이유 중에 제가 전 총장을 공손히 모시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대화 하기 힘든 분이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분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이런 신학교 기반을 만드신 것으로 너무 존경스러웠고, 하나님이 이 분의 달란트를 정말 축복하셨구나, 이 취지를 이어 10/40 창에 그리스도 제자 키우는 일에 100 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번 대화 중에 학교 운영에 간섭하려는 생각이 많은신 것을 알고도, 초기에는 대화를 시도 했으나,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 감당 못할 화를 내는 분이셔서, 참으로 혼동이 많았고, 대화를 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현지인 목사 사임 건 때문에 전 총장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결과로 총장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 전에 현지인 목사에게 사주하여 법적 권리를 변호사를 통하여 퇴거 시키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사회를 무시하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3) 신학교 토지 명의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 신학교의 미래는 보장 되지 않고 결국에는 현지인 목사의 사유 재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셔서 세운 신학교가 개인 신학교가 아닌 하나님의 신학교로 남게 되지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4) 제가 신학교에 총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 신학교에 교무처장으로 5 년간 섬겼던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2 가지 코멘트를 들었습니다. 이 신학교는 전 총장의 개인 신학교이며, 전 총장이 죽을 때까지 놓지 않을 것이라는, 이 신학교를 섬긴 선교사의 말씀입니다. 이 사태를 통하여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 처음부터 신학교를 컨트롤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하지 않고, 현지인 목사이름으로 이사회도 알지 못하고 있는 구조의 신학교라면, 이사회도 문제이지만 , 사실 전총장이 불법을 행한 것이라 봅니다.

지난 7 월 5 일에 퇴거 서신을 받고 이런 절실한 소식을 이사회 임원분들께 알렸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이사회를 보면서 저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참조#6: 이사회에 보낸 두번째 이메일)

신학교 권한이 이사회에게 있는데 행사를 하지 않는 이사회가 왜 존재하는가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의 최고 결정 기관이 이사회인데, 이사회가 모르는 체하면 진정 누가 실세인지 헤아려 봅니다. 이 신학교의 실세는 전 총장이 아직도 잡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현지인 목사에게 사과하고 (본인이 사임하고 나갔고, 왜 사과를 하라고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학생들과 학교를위해) 화해해서 신학교에 총장으로 남아 있어도 신학교 부지가 법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는 한, 제가 현지인 목사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이사회에서 총장을 보호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소신 것 일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사임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저희를 이곳에 보내실 때 10/40 창 복음화의 일꾼을 키우라고 주신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WTCS 를 통하여 이루워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신학교을 통하여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주님의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2 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장한 학생들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므로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신학교를 떠날려고 하는데 전 총장이 모든 재학생들에게 회유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조#7: 전 총장이 재학생들에 보낸 편지) 이 편지에도 보면 거짓말로 학생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With utter disappointment Pastor Pheak submitted his resignation to Pastor Roger after having so many uncomfortable situations. Pastor Roger took it hard and banned him from entering school. Pastor Pheak felt treated very unfairly. He said that he even felt threatened. Therefore, he had sought protection for himself, because Pastor Pheak came to know that Pastor Roger Kim was on the move seeking legal help and his acquaintance help to remove Pastor Pheak name completely from WTCS.”

전 총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약자입니까? 현지인 목사입니까 아니면 외국인 선교사입니까? 현지인 목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희를 협박을 했는데 꺼꾸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지인 목사를 협박했다는 글을 읽은 학생들이 웃었다고 합니다. 비교하기 위하여 현지인 목사가 선임한 변호사의 서신을 보면 현지인 목사가 선교사인 저를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In the event that you continue to engage in any illegal activity by acting in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or school, my client as a legal representative of the

Westminster Education Institute (WEI), Westminster Seminary of Cambodia (WSC) and Westminster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WTCS), will come forward and reserve the right to file a complain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참조 #2)

변호사는 퇴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기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추한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고, 이 신학교는 하나님의 신학교가 아닌 개인 신학교인 만큼 이 곳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 사모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집도 구하고 짐도 싸고 이사를 해야 하므로 퇴거 날짜를 연장해 달라고 설립자이며 이사이신 조광수 목사님이 신신당부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것은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데 목사들이 이런 사악한 일을 한다면 진정한 목사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짓말하고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신학교의 지도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으로, 살아 계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퇴거 마감은 19 일인데, 저는 한국에서 14 일에 캄보디아에 도착, 사모는 미국 공항에서, 한국 공항에서 대기로 기다렸다 15 일에 기적적으로 캄보디아에 도착 짐을 다 싸고 17 일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는데, 미국 방문중인 어느 선교사님 댁에 머물고, 어느 선교사님의 차를 빌려 타고, 일주일 만에 기적같이 집과 학사를 찾아 임대하고 이사를 다 마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40 창의 복음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신학교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문을 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함께 같이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중 김석훈 선교사 드림

첨부 파일:

- (1) 참조#1: 현지인 목사의 사직서
- (2) 참조#2: 교수회 결의서, 처장회 결의서
- (3) 참조#3: 이사회에게 보낸 첫번 이메일

- (4) 참조#4: 전 총장이 저에게 보낸 이메일
- (5) 참조#5: 변호사의 첫번째 서신
- (6) 참조#6: 이사회에 보낸 두번째 이메일
- (7) 참조#7: 전 총장이 재학생들에 보낸 편지

## Resingation for WTCS

---

From: Pheak Ny (pheak.ny09@gmail.com)

To: jx4world@gmail.com

Cc: navigator312@naver.com; revyuhan@gmail.com

Date: Monday, May 1, 2023 at 02:33 PM GMT+9

---

Dear Rev. Roger Kim

Greeting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decided to quit WTCS today.

Reason:

- 1- CRPC needs her senior pastor to work full time for her.
- 2- I do not like the way you are working

May God bless you and WTCS!

Sincerely yours!

Rev. Pheak Ny, Senior pastor of CRPC.





សាលាព្រះគម្ពីរ វេសមីនស្ទើ កម្ពុជា

**WESTMINSTER SEMINARY CAMBODIA**

**Westminster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88 Phlov Lum, Sangkat Snau, Khan Kamboul, Phnom Penh, Cambodia

Tel: 092-620-021 [www.westminstercambodia.org](http://www.westminstercambodia.org)

### **Faculty Council Meeting**

Date: May 5, 2023

Time: 2:00 – 2:48 PM

Present:

Rev. Roger Kim

Rev. KC Kim

Rev. Atoka Swu

Rev. Sarath Sous

Rev. Maxim Farocanag

**Agenda:** Discuss Rev. Pheak Ny's unethical resignation.

**Resolution:** The faculty council has reached a consensus to accept the resignation of Rev. Pheak Ny and to terminate his position as a faculty member of WTCS, with immediate effect, due to his failure to comply with the expected standards of faculty conduct.

Signed by:

Rev. Roger Kim

Rev. KC Kim

Rev. Atoka Swu

Rev. Sarath Sous

Rev. Maxim Farocanag

**WESTMINSTER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CAMBODIA**

**EXECUTIVE COUNCIL**

**RESOLUTION**

6 May 2023

1. The executive council accepted the resignation submitted via email on 1 May 2023 by Rev. Pheak Ny, Chief of Operations (COO), as shown below:

**Pheak Ny** <pheak.ny09@gmail.com>

Mon, May 1 at 12:33 PM

**To:** Roger Kim

**Cc:** 권일, David Yuhan

Dear Rev. Roger Kim

Greeting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decided to quit WTCS today.

Reason:

- 1- CRPC needs her senior pastor to work full time for her.
- 2- I do not like the way you are working

May God bless you and WT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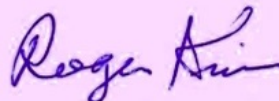
Sincerely yours!

Rev. Pheak Ny, Senior pastor of CR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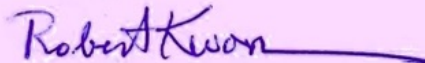
2. His resignation is accepted on the ground of negligence of his responsibilities as COO and instructor, leaving WTCS without advance notice during the semester. In so doing, Rev. Pheak Ny as a pastor and a seminary professor set an ungodly and unethical example to the students. He resigned because he did not approve of the WTCS leadership and its policies.

Executive Council:

Rev. Roger Kim, President:



Rev. Robert Kwon, CFO:



Rev. KC Kim, Dean of Students:





# MEMORANDUM

수신: WWMF 이사회 이사장 최해근 목사님

발신: WTCS 총장

제목: 학교 토지 명의 건

날짜: 2023 년 5 월 29 일

Cc: 서기 이길호 목사님, 회계 김경문 목사님, 유한호 목사님, 조광수 목사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 1. 배경

2013 년도에 신학교 건물 건축하기위하여 현 토지를 구입하였을 때 외국인 명의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캄보디아 법에 따라 현지인 2명의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유한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NGO 로 등록된 Westminster Education Institute 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사회의 결의로 2명 (Pheak Ny, Piset Sem)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5명의 이사들의 허락없이 부지를 팔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서류를 학교에서 찾을 수 가 없습니다. 그 서류를 찾더라도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현지 변호사가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 당시 최선의 방법으로 두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부지를 구입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 입니다..

현재 많은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현지인의 이름으로 교회당을 짓기위해 부지를 구입했는데 땅 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현지인들이 땅을 차지하거나 어렵게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명의로 된 부지를 법인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공의 시설과 자산을 개인의 이름으로 미래까지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들 합니다. WTCS 부지가 영구히 보존되기 위해서는 토지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1)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캄장신)은 한 명의 한인 선교사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법인(회사)를 만든 후 캄장신이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예 2) 캄푹에 있는 Foundation Immanuel (15 hectares) 땅은 조에스더 선교사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New Life Mission Assocation 박영배 목사가 와서 법인을 만들고 회사 이름으로 토지 명의를 변경중에 있습니다.

## 2. 사안

(1) WTCS 설립때부터 함께한 페아 목사가 5월 1일 여러가지 이유로 학교에서 학기 중에 갑작스럽게 이메일로 사임한다고 통보하고 출근하는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보직과 교수직을 경고없이 그만 두었습니다. 페아의 목사의 사직때문에 학교 행정에 잠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직서 참조)

주 이유는 (1) 교회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학교 사역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 안되었다고 말합니다. (2) 저의 방침과 비전이 자신과는 맞지않다고 말합니다.

저는 페아 목사의 사임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2) 페아 목사가 사임을 안했더라도 페아 목사와 피셋 개인 이름에서 토지 명의가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학교 자산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이사회의 소관입니다. 현지에서 어떤 방법이 토지 보전에 안전한 것인지 법률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세가지 방법이 있다고 있습니다.

(a) WWMF 이사진중에 젊은 한분이 캄보디아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 분의 명의로 등기를 옮기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300,000 주고 사는 비용들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b) 은행을 통해 신탁을 세트업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만만히 않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c) 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현지 시민권 소지자가 51% 지분을 가지고 외국인이 49% 가지는 것입니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현지 시민권 소지자의 명의가 언제든지 바뀔수도 있고, 외국인 명의도 바뀔수 있습니다. 법률 사무소에서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세가지 방법은 부동산 매매 형식이기 때문에 취득세 (공시가격에 4%)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땅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 가격도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땅값 시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비용이 \$2,200 들며 매달 \$100 관리비를 법률사무실에 지불해야 합니다. 매년 형식적으로 세금 보고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주실 사안입니다.

(a) 토지 명의를 위한 회사 설립

(b) 믿을 수 있고 한국인으로서 현지 시민권을 소유한 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분이 명의를 빌려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분은 에스더 조 선교사입니다. 유한호 목사님의 사모님의 조카되시느 분이며 캄보디아에 18년 사역하셨고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셔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유고시나 언제든지 큰 비용 발생없이 다른 사람으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법인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고 법인안에 현지 시민권자가 51% 지분만 유지하면 됩니다.

(c) 외국인 한분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그 분은 캄보디아에 오셔서 지문 (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d) 토지 명의 이전에 필요한 취득세를 이사회에서 감당하겠다는 결의도 필요합니다.

(4) 회사가 설립이 되면 2 현지인들 (페아와 피셋)이 변호사 앞에서 매매계약서에 지문 (싸인)을 하고 공증받은 후 국토부에 취득세를 내고 명의 이전을 신청하면 3-4 개월 후에 완료가 됩니다. 법률 사무소를 사용하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2 현지인이 순조롭게 협조해주기를 바랍니다.

### 3. 추가 사안

(1) 학교 기혼 기숙사 건물은 유한호 목사님의 명의로 매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명의는 아직 KP Development Company 사장 부인 (현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속히 토지 명의 이전을 현지 시민권 소유자 이름으로 옮겨야 합니다. KP Development Company 가 재정난을 겪고 있어 부도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건물이 있는 땅이 채권자들에게 넘어 갈 수 가 있다고 합니다.

(2) 누구의 이름으로 토지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지 결정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만일 학교 토지 명의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이 설립된다면 이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끝---

## 다시 부탁드립니다.

From: David Yuhan (revyuhan@gmail.com)

To: jx4world@gmail.com

Date: Wednesday, May 31, 2023 at 10:01 AM GMT+7

사랑하는 김석훈 목사님 그리고 감사모님

유목사 내외는 혼신을 쏟아 부은 사역을 돌아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이 글을 씁니다. 벌써 80 줄에 들어 섰기에 캄보디아의 웨스트민스터 사역은 우리 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생의 총정리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의 대화 끝에 목사님께 당사자Pheak 목사를 비롯한 현지의 관계들에게 전화 걸어도 좋다는 말을 들었기에 Pheak 목사와 잠깐 동안 전화 통화를 한 바 있으며, 상황 파악을 위하여 아토가와 사랏 등과 전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번 대화에서도 부탁드린 바와 같이 Pheak 목사와 화해를 부탁하였는데 목사님은 계속 자기 주장대로만 처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 내 소견을 다시 밝힌 후에 다음 단계로 들어 갈까 하는 내 생각을 보내드립니다.

목사님께서서는 그 이후에도 Pheak 목사는 다운 목사가 아니라고 계속 스텝 미팅에서 강조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부부는 너무 마음이 격하여 몇 일간 마음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임을 밝힙니다.

목사님, 나 유목사는 생면 부지의 목사님을 만난 후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목사님을 Full endorse를 하며 이사회 인준을 거쳐 평생의 과업을 인계하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수차에 걸쳐 의견을 나눌 때에 분명한 의견 차이가 있지만, 아니, 내 의견은 무시 당해 왔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또 고쳐 잡아 오고 있던 차에 이번에 목사님이 보이신 처사를 듣고 너무 놀란 나머지 이를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첫째, 목사님께서서는 전임 총장들의 헌신에 따른 업무 실적을 너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소평가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며 나아가서는 목사자질까지도 평가절하하며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Pheak 목사가 목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구요? 1대 총장 황보목사님과 2대 총장 유목사가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며 의논한 후 선발하여 그를 WEI의 법규상의 책임자로 그리고 곧 매입한 부동산의 등기자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목사로 훈련을 하며, 노회 (총회)의 일들을, 그리고 지교회의 담임목사로 일을 맡겨왔는데 3대 총장으로 부임한 목사님이 그에 대한 특별한 범법행위나 우리 학교에 대한 수치스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칭하여 "목사의 자격도 없는 자"로 공문까지 발행한 바 있으니 그것은 Pheak 목사 자신 뿐만 아니라 그를 목사로 불러 또 학교의 스텝으로 일을 시켜 온 전임 총장들을 너무 우습게 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학기 중에 사표를 보낸 처사가 잘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목사의 자질이 없는 증거라구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로부터 사표를 월요일에 받았는데 금요일 스텝미팅에 해고 확인을 공문으로 광고했다고 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해고를 한 목사님의 처사는 너무 우리 선임자들을 무시한 불쾌한 처사였습니다. 목사님이 3대 총장으로 부임하기 하던 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번 일의 관련자인 권일 목사께서 친구 총장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로 세관에서 임직패를 아주 아주 고가로 (세관의 직원들까지 인정한 턱없이 높은 금액) 지불하고 왔을 때에 이를 질책하는 저에게 사임을 거듭 말하며 고집하던 그일 말입니다. 유목사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텝미팅을 특별히 불러 공개적으로 대신 용서와 사과를 하여 해결하였었는데..... 목사님께서서는 그 주간에 만날 수 없으면 다음 주간이라도 다시 해 보지도 않고 .....

그리고 목사님,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목사는 입은 은혜를 절대 저버릴 수 없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나아가서 유목사가 모든 것을 걸고 세워놓은 우리 학교도 피차간에 다져진 신뢰를 저버릴 수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이니까요.

목사님, 개척교회를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황망한 외국 미션 현지에서 학교를 새로 시작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유목사는 개척도 신학교 시작도 해 보았습니다. 개척교회도 힘들지만 미션현지에서 신학교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힘들다 못해 교회 개척에 비하여 50배 100배 더 힘들었다고 분명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도 없고 자본도 없는데다 언어도 불통이며 관습도 다르며 규정과 법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해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Pheak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어려운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WEI의 Director 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 자신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캄보디아 시민권자인 그의 동생을 알게되어 신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NGO WEI 인가를 받아 학교를 시작하고 영어로 하는 학교를 세웠습

니다. 다시 말하여 그 없이는 학교가 세워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그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그의 지극 정성이 담겨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를 "목사의 자질이 없는 목사라고" 이름 붙혀 내 보낸다는 것은 우리 학교가 의리 없는 결정, 곧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없이도 할 수 있으니 없어도 된다고 말입니다. 그가 학교 교수가 되기 전에 먼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학교의 일과 교회 일을 병행해 왔으며 교회에 방문하는 선교팀이 올 때는 그일을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선교팀이 올 때 학교일을 못한다고 그것이 문제라구요? 너무 시켜온 것이 오히려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뭐, 그를 위하여 내어 보낸다구요? 그렇다면 만나 일을 줄여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만나 화해를 하라는 전임 총장의 말을 그렇게 무시하여도 됩니까?

한 가지 더 말 하겠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유목사는 학생들을 돈으로 샀다"고 하였는데,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압니다. 비지네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지요? 우리 모든 사정을 모르고 한 말이라고 다시 밝힙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 말을 유목사한테 힐문 하듯이 말합니까? 사실, 유목사가 떠나기 전해에 월 사례를 지금과 같이 올렸지 그 이전에는 다른 곳에서 받는 금액의 절반도 사례하지 못하였기에 유목사는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스태프들을 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돈으로 샀다" 라고 평하는지 모르고도 모를 일입니다. 그 작은 사례를 받고 열심히 일한 것은 그들에게 사명을 불어 넣어 준 지도자의 능력이지 돈으로 산 것이 절대 아닌 것을 말해 둡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어느 스태프, 특히 아토카 이름을 칭하였는데, 의 말이라고 하며 "페아가 없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다고 내게 소개하였는데...내가 아도카에게 전화를 걸어 무엇이 문제였느냐고 물었더니 페아 목사가 얼마나 수고하여 왔는가를 잘 아는 자기는 그런 의미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는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탁하건데, 앞으로는 누구에게나 그런 필요없는 말을 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 드립니다.

김석훈 총장님 그리고 사모님!

여러 가지 언급하지 마시고 찾아가 미안하게 되었다고 사과하시고 없던 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옳은 화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대로 대답의 말을 하겠지요. 페아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이미 대화도 없이 사표를 보낸 것에 대한 것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업무 조정은 하면 되는 것이구요. 아마도 이것이 전임 총장들-황보 목사님의 뜻도 같을 것이니까- 의 마지막 부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미국에 있는 잘 셋업된 신학교가 아니기에 때에 따라서 위자리의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먼저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그리고 또 부탁하기도 합니다. 말도 없이 사표를 던져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또 또 또 청하여 대화를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빛진자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유한호 목사 부부 드림

미리 준비해 놓은 email이지만 이제 보냅니다.



**ព្រះរាជាណាចក្រកម្ពុជា**  
**ជាតិ សាសនា ព្រះមហាក្សត្រ**

**ការិយាល័យមេធាវី ស៊ី អិល អេស**

**No: 163/23 C.L.S. Law Office**

**NOTIFICATION**

I, the undersigned, attorney-at-law, **CHUK Chanmolinda**, ID No. 1079, am a member of the Bar Association of the Kingdom of Cambodia, CLS Law Office, located at #50A, St. 358, Tuol Svay Prey 1 quarter, Chamkar Mon district, Phnom Penh and attorney-in-fact of Mr. **NY Pheak**, Director of the Westminster Education Institution,



**Would like to inform**

**Mr. SUKHOON ROGER KIM and Mrs. OCKKYUNG JOY KIM**

**Subject:** Request to stop all activities that violate the statutes of the Westminster Education Institute, which is legally registered with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please leave and remove personal belongings from the Westminster Education Institute within 14 days after receiving this letter

**Reference:** - Letter No. 728 N., dated May 20, 2011 of the Ministry of Interior

- Statutes of Westminster Institute of Education, dated May 9, 2011
- Real Estate Ownership Certificate No. 12052608-0088, dated December 26, 2013
- Power of attorney No. 163, dated July 3, 2023
- As the necessary to protec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Westminster Education Institute**



With regard to the subject and reference above, in my capacity as the attorney-in-fact of Mr. **NY Pheak**, President of Westminster Education Institute, I would like to inform Mr. **SUKHOON ROGER KIM** and Ms. **OCKKYUNG JOY KIM** that: Based on Article 5 of the Statutes, Westminster Education Institute was established with clear objectives and activities. First, to provide scholarships to poor youths to learn vocational skills and foreign languages. Second, to provide computer skills training, music and sports. Third, to provide shelter, food and travel expenses for poor youth and students in remote provinces. Fourth, to provide Korean and English language education from primary to high school. And fifth, to provide overseas internships for students and youth to gain good experience, but the above-mentioned good intentions and activities of the Westminster Education Institute have been eliminated and reduced unilaterally through your leadership. In the past, you have terminated the organization's unilateral leadership, and instead turned into dictatorial leadership, non-transparent and non-democratic leadership, and discriminative against the Khmer people, which is contrary to the organization's statutes. Your actions seriously undermined the values, honor and dignity of the organization. However, I would like to emphasize to you that dissolving the organization, changing the location of the organization, approving the organization's budget, changing the purpose and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changing the composition of the president of the organization, changing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must be approv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 and must be approved by a majority of 50% + 1 on the quorum attended by two-thirds of the members who have the right to vote, so please stop immediately any activities that violate the statutes. The organization would like you to leave and remove your personal belongings from the location of Westminster Education Institute, located at plot number 12052608-0088, located at No. 85, Lum Road, Snor Keut village, Snor quarter, Dangkor district, Phnom Penh, or the current residence modified by the authorities, which located on Lum Road, Snor Keut village, Snor quarter, Kambaul district, Phnom Penh, within 14 days after receiving this notification letter. On behalf of my client, Mr. **NY Pheak**, President of the Westminster Education Institute, does not allow you to use the names of the Westminster Education Institute (WEI), Westminster Seminary of Cambodia (WSC) and Westminster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WTCS), act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or school, either directly or online, either locally or abroad, without absolute permission. In the event that you continue to engage in any illegal activity by acting in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or school, my client as a legal representative of the Westminster Education Institute (WEI), Westminster Seminary of Cambodia (WSC) and Westminster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WTCS), will come forward and reserve the right to file a complain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s mentioned above, you are kindly requested to accept my request on the above subject and contact my client as appropriate.

Please accept the assurance of my highest regard.

Phnom Penh, July ...**05**..., 2023

**Signature and Stamp**



**Lawyer CHUK CHANMOLINDA**

Phnom Penh, July ....., 2023

**Annotation of the deliverer or  
recipient**

CC:

- Relevant authorities
- Board of Directors of the Organization
- Founding members
- Executive Board of the Organization
- Record-Archives

## Fw: The Letter of Termination

From: Roger Kim (jx4world@gmail.com)

To: hankschoi@gmail.com; kh10206@gmail.com; pastor.lukekim@gmail.com

Cc: imfinc01@gmail.com; davidcho227@gmail.com

Date: Wednesday, July 5, 2023 at 04:53 PM GMT+7

WWMF 이사회 임원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은 페아 목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보낸 편지입니다.

2주안으로 학교를 떠나라는 통보입니다. 모든 사역을 멈추라고 합니다.

페아 목사가 학교 부지도 학교도 법적으로 본인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사회 임원들에게만 보내드린 공문에 대하여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리라고 기대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서운했습니다. 학교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였기에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WTCS는 개인 신학교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지 법인으로 학교 토지 명의되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입니다.

변호사가 보낸 편지에도 거짓말로 꾸며되어서 보내왔습니다. 페아 목사가 사임한 것이지 제가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WEI NGO는 처음에 학교를 시작할 때 사용한 것이고 지금은 WSC 이름으로 종교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에 이사회에서 속히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가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석훈 드림

----- Forwarded Message -----

**From:** Pheak Ny <pheak.ny09@gmail.com>

**To:** Roger Kim <jx4world@gmail.com>; kil lee <kilhlee2003@yahoo.com>

**Cc:** David Yuhan <revyuhan@gmail.com>

**Sent:** Wednesday, July 5, 2023 at 05:14:18 PM GMT+9

**Subject:** The Letter of Termination

Dear Rev. Kim and Rev. KilHLee

Greetings in the name of our Lord!

This is my letter that I sent to Rev. Kim and WWMF.

I hope you understand me and try to solve this problem as soon as possible.

In Christ!

Rev. Pheak Ny



the Letter of Termination English Version.pdf  
321.1kB

Dear WTCS students

Greetings!

I am pastor David Yuhan, the president Emeritus of WTCS.

First of all, I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ology to all the students, alumni and staffs and professors who love WTCS. You all know that WTCS recently had a serious problem within the school. It must have hurt many of you deeply. I have met some of current and former student since I came back to Cambodia last week. They were all deeply hurt by the news. Some of them burst into tears in front of me. I felt so sorry. We started WTCS to serve the people of Cambodia and other nations for them to get to know the Lord who is the fountain of all blessings. We hoped that you all enjoy the love and peace of the Lord deeper through the ministry of WTCS. Somehow, the situation got so out of control that it has hurt everybody deeply that loves WTCS. I am really sorry. I really do apologize to all of you for that.

I have often wondered to myself as to how the school problem became so out of control. WTCS has been a loving community where people loved to serve and support one another. We guarded off our school from many challenges before by working and serving together. I believed that we would overcome the problem and protect our school this time again. Somehow, we have not been successful so far. As soon as WWMF requested me and Rev. Oem to take care of WTCS situation, I tried to see if there is any possibility of reconciliation of all parties involved in the current problem. I have suggested a meeting with people who are involved in the struggle. Unfortunately, I haven't received any response from Pastor Roger Kim so far. However, I still believe that we should reconcile to each other if it is possible at all.

When I retired from the school and became a president emeritus, I was so happy and relieved. Although I love WTCS with all my heart, I was tired and exhausted by overworking for many years. Now I am 81 years old and have become old. I never desired to get directly involved in the school affairs again. Even when pastor Roger and Pastor Pheak contacted me to ask an advice from me, I did not like to directly involved in the current school issue, because I was retired. I begged them many times to have a reconciliation in order to work together. But I noticed that the situation got worse. I couldn't just sit at my home when WTCS is in crisis now.

I had a few conversations with Pastor Pheak through email and kakaotalk and also to Pastor Roger Kim through his acquaintance before I came to Cambodia. With that, I had some knowledge of the issue. But it wasn't complete at all. So, since I arrived Cambodia, I have talked with multiple people to find a solution including Pastor Pheak, but Pastor Roger Kim didn't want to talk with me somehow. I heard that I am being accused that I was behind the struggle. Some have even said that I have incited pastor Pheak to seek a legal help. That's not true at all. I just wanted all people involved to be reconciled for WTCS.

Pastor Roger Kim worked hard for WTCS since he was appointed as my successor. Pastor Pheak also worked hard for WTCS from the beginning of the school. I just wanted all to appreciate each other. I don't think that pastor Pheak have any intention to do harm to the



school when he started a legal appeal. I know him very well. He honestly told me that he disagreed with Pastor Roger on several issues since he works there. It seems that he was seriously cornered at the school in spite of his position as keyman of WTCS. With utter disappointment Pastor Pheak submitted his resignation to Pastor Roger after having so many uncomfortable situations. Pastor Roger took it hard and banned him from entering school. Pastor Pheak felt treated very unfairly. He said that he even felt threatened. Therefore, he had sought protection for himself, because Pastor Pheak came to know that Pastor Roger Kim was on the move seeking legal help and his acquaintance help to remove Pastor Pheak name completely from WTCS. I believe that's how it came to this point. No one wants to see a turmoil like this. But as a pastor, I have seen that such things happen without any ill intentions. It surely must be a scheme from a devil. So, that's where we are now.

So, what should we do now? Here are my suggestions.

First, I still hope that we can all be reconciled. I hope and pray that all parties involved forgive each other and accept each other, if it is possible at all. We can be united as we were before or even better. Secondly, if it is not possible to come together again. Let us just bless each other, wishing that we will someday be together as brothers in Christ as Paul and Barnabas.

Thirdly, for those students who were hurt in the middle of this turmoil, I sincerely apologize to you. I am really sorry. Still, please do not give up on your dream in Christ that you had when you came to WTCS. Keep on dreaming in Christ with WTCS. In WTCS, we will be getting ready to serve you again.

Please come back.

Rev. David Yuhan  
Emeritus President WTCS.